

나의 믿음, 나의 신앙 ' 완전 소중한 사랑



완전 소중한 사랑

영화 제작자 김대선

I 이 영화는 김대선이라는 이름 앞에 영화제작자라는
는 웬지 송구스러운 칭호를 갖게 해준 첫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화에 붙어있는 자격 없는 제작자라는 칭호가 사실 지금도 낯설고 어색하기만 하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만드신 영화 <완전 소중한 사랑>, 이 영화를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

II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영화투자배급사인 쇼박스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콘텐츠를 만드는 하나님의 기업을 꿈꾸며 회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콘텐츠는 또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도, 알 수도 없는 시절이었다. 단지 착한 콘텐츠만 만들면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거두었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양 착각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과 혼돈의 시간 가운데 나는 이미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다. 고요히 그러나 힘 있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 시간이기도 했다.

III “너는 아직도 너의 의지로 사느냐?” 이 혼란한 회사를 정리하고 싶어서 기도하던 어느 날, 어느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이 온통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맴돌며 소용돌이쳤다. ‘그래, 난 아직도 나의 의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다시금 회사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빙하여 사내에서 예배를 세우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상하리만큼 말씀이 재미있고 달았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허니문 기간이었다.

IV 말씀을 배워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회사로 보내주셨다. 이 영화 <완전 소중한 사랑>의 피디와 감독도 이때 만난 사람들이다.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예배시간과 우리의 삶은 분리된, 무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화 작업과는 무관한 별개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화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지 는 물론 그래야 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예배와 일(영화)은 별개의 작업이고 시간들이었다.

V 우리의 노력이 시나리오로 결실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시나리오의 저작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매일 말씀을 나누고 기도도 했지만, 우리들의 시나리오에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 “어찌 해야 할까요? 그만두어야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격려와 확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기획하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과 내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 모든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기로 했다.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전개해야 할지 몰랐고 그렇다고 이렇다 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다. 기도하며 매달리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화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과 절차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마음먹었다.

VI 이후로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마침 이때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섬겼다. 회사 내에서 수요일예배를 드리고 간사처럼 일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정작 영화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 같았다.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시나리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애초부터 없었다. 그러나 이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되었다.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에서 나를 보았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처럼 여겨졌다. 그날부터 이 영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나리오를 고칠 작가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처음으로 이 영화를 위해 드린 기도였다.

VII 그러던 중 지금의 작가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그 친구는 작가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준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 같은 사람이었다. 이 친구에게 시나리오를 한 번 읽어보라고 했다. 그냥 모니터링이나 한 번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친구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완전 소중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네요.” 그 문자는 잠자던 나를 다시 한 번 깨웠다. ‘이 친구는 무언가 다르다.’ 다음 날 급히 그 친구를 만나러 갔다. 그 친구는 한 번도 시나리오를 써본 적이 없지만, 말아서 써보고 싶다고 했다. 예전 같으면 시나리오를 아무나 쓰냐고 대답할 법도 한데,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도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갔다. 그렇게 그 친구는 그날로 우리의 작가가 되었다.



VIII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몇 달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 역시 기도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소아암 환우들을 보게 하셨다. 소아암재단을 돌아보고 소아암 완치자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느꼈던 크고 작은 감동들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던 어느 날 작가로부터 온 시놉시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소아암 완치자인 청년이 아닌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지금까지 이 영화를 준비했다. 이 영화의 제작비는 100% 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여러 분들의 재능 기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로 제작되었고 마침내 개봉되었다. 사랑에 빛진 영화이기에 수익의 70%는 다시 소아암 관련 재단과 문화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IX 이 영화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의 공통적인 외로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 무언가에 깊이 빠져서 마치 그것이 전부이고 참된 기쁨인양 살아가는 오늘의 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팬텀, 짝사랑, 식탐, 성형, 낙태, 음주, 자살, 기출 등 극중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아픔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어둡거나 우울한 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두고 맑고 투명한 영화라 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그러한 죄들이나 현상을 목상한 영화가 아니라 그것들을 사랑으로 덮은 영화이기 때문일 것이다. 소아암을 이겨낸 온유라는 주인공의 삶과 사랑을 통해 회개와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X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이 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밖으로 요란하게 십자가를 장식처럼 걸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영화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이 영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18-19)

하나님은 이 영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삶이 예배임도 알게 하셨다. 영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함도 알게 하셨다. 이 영화가 세상에서 얼마만큼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나는 물론

이 영화에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 의식을 갖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되지 않는다.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영화가 천만 명에게 보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디 하나님의 영화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가 되길 기도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신실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 살아가련다.

줄거리

소년 시절 소아암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 청년 온유. 언제나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착한 성품의 온유이지만 세상의 편견을 피해 살아가는 게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어느 날 자원봉사를 하던 병원에서 소아암을 앓고 있는 사랑이로 인해 우연히 예나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세영과 사랑이, 이들이 펼쳐가는 희망과 나눔의 과정을 통해 보여지는 햇살처럼 따뜻한 이야기이다.



김대선 주식회사 CJ NKINO 대표, 쇼박스/미디어플러스 영화 투자/마케팅 총괄 본부장을 거쳐 현재 주식회사 옐로우라빗 대표이다.